

에이치시티 2분기 매출액 152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

- ▶ 상반기 누적 매출액 303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 영업이익률 21.4% “반기 최대 실적”
- ▶ 8월 배터리 시험장 준공 예정, “선제적 CAPA 확대로 전기차 배터리 시험 시장 선점할 것”

<2021-08-05> 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072990, 대표이사 허봉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1년 2분기 매출액 152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5.2%, 영업이익은 14.5%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매출액 303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상반기보다 18.1%, 32.6%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21.4%를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5G 스마트폰을 비롯한 고사양 무선통신 제품과 기지국, 중계기 등 5G 인프라 대상 시험인증 매출이 작년 상반기 대비 34.2% 증가하며 실적 향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교정 사업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주요 거래처의 장비 투자 증가로 교정 물량이 늘어나고, 국제 공인교정기관으로서 교정 항목을 지속 추가하는 등 우호적 시장환경 속 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에이치시티는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배터리 방폭 시험장 운영을 발판삼아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3대 배터리 제조사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을 진행 중으로, 기존 중소형 배터리뿐 아니라 차량용 중대형 배터리까지 시험 품목 및 고객사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배터리 시험 전용 건물은 8월 준공 예정이며, 중대형 충·방전기, 방폭챔버 등을 갖춰 배터리 화재 안전성, 신뢰성, 성능 등 다양한 부문의 시험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이치시티 허봉재 대표이사는 “글로벌 탄소중립정책 및 전기차 산업 확장에 따라 배터리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배터리 시험장 신축은 각국의 전기차 출시 급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CAPA) 증대 차원으로, EV/ESS 배터리 관련 시험 수주를 확대하고 고객사를 다변화해 성장하는 배터리 시험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